포교원 · 경찰전법단 세월호 추모법회

4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봉축 대법회 및 추모법회'



세월호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가 열렸다.

세월호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경찰전법단은 4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부처님오신날 대법회 및 추모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경승실장 도문 스님, 동해해양경찰청 경승실장 원행 스님 등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포교사단 및 불교단체 회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경찰불교회원인 임길수 경위와 윤은실 행정관은 경찰청 대표로 발언문을 낭송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나은 기자

역삼청소년수련관, 한-홍 청소년 교류 성료

동자승 그리기,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 공유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4월 16~20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홍콩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홍콩의 'Our Lady of the Rosary College' 청소년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 미술을 이해하고자 이천 도자기마을, 낙산공공미술벽화거리, 홍대 피카소거리 등을 방문했다. 또한 홍콩청소년과 한국 또래친구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마술, 캐릭터 동자승 그리기, 한복 체험 등 여러 체험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은 4월 16~20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홍콩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이와 같은 국제교류 활동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이런 일환으로 오는 5월 14~18일 홍콩 대학생들과 국제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레협, 마음으로 다가가는 문화학교 마련

불교 어린이법회 지도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은 '2014 문화유산 방문교육-마음으로 다가가는 문화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문화재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

문화학교는 성균관과 문묘(조선시대의 교육과 선비문화)를 주제로 5월 25일, 6월 29일, 8월 31일, 11월 2일 오전 10시에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불레협은 "문화유산 역사 전문 강사 분들이 법회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지치고 아픈 마음, 가족과 산사서 '休'

문화사업단, 5월 봉축·가정의 달 맞이 템플스테이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한다. 5월이지만 국민정서는 밝지 않다. 이럴 땐 번잡하고 요란하게 여행을 떠나기보다 조용한 산사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떨까. 조계종 문화사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13곳 사찰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부처님오신 뜻 기리면서

만해 한용운의 시심과 불심이 함께 깃든 강원도 인제의 설악산 백담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화장세계 템플스테이'를 5월 6일 마련한다.

내설악의 자연 속에서 스님과 차담(茶啖)을 나누고 맥놀이명상(사물체험), 소원을 비는 탑돌이, '시심즉불' 등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나는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강원 인제 백담사 템플스테이만의 독특한 전통인 '시심즉불'은 자신의 마음을 시로 적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 인기가 높다. (033)462-5035/5565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는 봄꽃보다 더 향긋한 특별 템플스테이를 5월 5~6일 개최한다. 아름다운 도비산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는 '야생화 찾기' 프로그램은 물론 소원을 비는 탑돌이,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심신에 활력과 기운을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천수만 등지의 생태환경을 견학할 수 있어 체험여행지로도 좋다. (070)8801-3824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서기381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현존 최고(最古)의 도량인 **강화 전등사**는 휴식형 '휴~~템플스테이'를 상시운영한다. 예불과 공양시간만 준수하면 본인 마음대로 편안히 쉴 수있어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족산에 자리한 전등사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던 사고가 있던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032)937-0152

힐링하고 무료혜택도 받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관광주간을 맞아 전국 13개 사찰에서 가족 템플스테이 'One+One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각지의 여행 및 체험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관광주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이며, 템플스테이는 산중 고찰에 펼쳐진 아름다운 봄꽃 전경과 함께 더욱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인제 백담사, 서산 부석사 등
탑돌이, 생태 프로그램 운영
관광주간 맞이 '1+1' 이벤트
가족 단위 참가자에 무료 혜택

'One+One 이벤트' 는 금산사, 낙산사, 법륜사, 삼화사 등 전국 각지의 13개 사찰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자녀에 한해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무료 혜택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까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유아) 동반 시 프로그램 참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자연의 생기를 느껴보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이 곁들여지니 학습에도 제격이다.

또한 관광주간 기간 중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가족 참가자에게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권을 증정한다. 해당 사찰에 주소를 남기면 6월 중 참가한 가족의 수와 동일하게 발송되며, 13개 사찰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

후속 템플스테이 무료 제공으로 사찰별 고유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관광주간 기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 자체 행사 준비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산사에서 가족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로 하여금 행복의 씨앗이 가정에서부터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주간 '봄꽃찾아 가족여행'(spring.visitkorea.or.kr)이나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황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아이와 엄마가 법고를 치고 있다.

'One+One 이벤트' 대상 사찰

금산사, 낙산사, 도갑사, 미황사, 반야사, 백담사, 법륜사, 법주사, 대원사(산청), 삼화사, 수덕사, 심원사, 용문사(양평)

"나를 다스려야 자녀와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한마음과학원, 5월 13일부터 '학부모 프로젝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 및 선원 경내에서 '지혜와 자비의 다스림 학부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7주 과정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주인공으로 살아요 △평가하지 말아요 △다그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쉼 △내 안의 꽃을 피워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부모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소재로 마음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을 자신과 자녀에게 적용하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다스림의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마음과학원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장기 자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의식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다스릴 수 있는 만큼 자녀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031)470-32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관계 깨우는 소통 교육

5월 15~17일 목동 국제선센터서,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불교와 심리를 활용한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이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5월 15~17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교육인 '나와 너, 관계를 깨우는 의사소통'을 개최한다.

스님과 재가불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최훈동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가 강사로 불교의 연기법과 심리학의 정신분석을 접목한 이론 ·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수업을 통해 고통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심리적으로 짚어보고 그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면 심층의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관계에 관한 연기적 법칙을 명상을 통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계 자체도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가운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생 상호간 실제 훈련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강사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매순간 교육생과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4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4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6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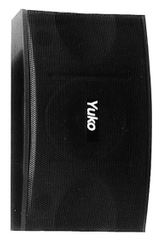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